

제434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4.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상정된 안건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 2
- o 소위원장(정진욱) 인사 3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4
 - 가. 산업통상부 소관
 - 나. 중소기업부 소관
 -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4
4.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4

(14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어 주는 원유,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안정 상태는 아직까지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원유 가격은 100달러를 넘었고 주유소 주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년 동월 대비 3월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에 달하고 석유류는 9.9%나 상승했습니다. 환율 역시 달러당 1500원 선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특히 산업의 쌀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재기 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업 분야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역시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임과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 또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내수시장 침체라는 힘겨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요인에서 야기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1회 추경안이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및 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 등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된다면 대내외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안이 편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의 필요성과 집행계획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금번 추경안과 관련이 있는 19개 공공기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관계로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기업부장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한성숙 중소기업부장관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김동아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추미애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새롭게 보임되었습니다. 또한 4월 3일자로 한병도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재관 위원님께서 다시 보임되었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간략히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시지요?

○**이재관 위원** 아닙니다.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다시 오신 것 환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

(14시47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는 김동아 위원님을 이재관 위원님으로, 한병도 위원님을 추

미에 위원님으로 개선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장철민 위원님을 정진욱 위원님으로, 김동아 위원님을 이재관 위원님으로 개선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동아 위원님을 이재관 위원님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아 주셨던 장철민 위원님을 대신하여 새롭게 개선되신 정진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개선된 소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정진욱) 인사

(14시48분)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새롭게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욱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예산결산소위원회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또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이 동시에 닥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증가와 내수 위축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수급 안정, 수출기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청년 창업의 지원 등 산업과 민생을 동시에 지키고 사각지대 없는 고른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AI 전환 지원과 해외 위조상품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국민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할 지금은 협력의 시간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신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지식재산처 소관

3.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4.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14시51분)

○위원장 이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 나오셔서.....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 박성민 간사님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본격적인 추경 심의에 앞서서 한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처와 민생 안정 목적으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추경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열 차례나 편성을 했고, 물론 코로나 등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는 2회, 박근혜정부는 3회, 윤석열 정부는 1회에 불과합니다. 추경이 재정건전성 악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두려웠는지 적자국채 발생 없이 올해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초과 세수는 국가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갚도록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국민 기만 정부입니다.

전쟁 추경이라고 합니다. 핑계가 너무 거창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들의 문제점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마는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를 비롯한 정부 대부분의 추경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표현대로 전쟁 추경이라면 중동 사태에 따른 예산집행에만 전념해도, 1원이라도 아껴서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능형 로봇, 창업 열풍, K-브랜드 인증제 같은 사업들이 웬 말입니까?

미국이 전쟁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또다시 추경하시겠습니까? 과거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610억 달러 전쟁 비용 중 우리나라도 분담하라고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위원장님,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국회 동의를 받아 당시 돈으로 5억 달러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는 환율도 치솟아서 과연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할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 말하고 전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속으로 끼워 맞춰서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추경 정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국회가 정신 차리고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꼭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 전쟁이 6주차에 접어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부정적 영향이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 물류 차질, 수출 애로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면한 위기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산업통상부는 공급망 안정화, 피해 기업과 산업 지원 그리고 제조 AX 대전환을 3대 축으로 13개 사업, 총 924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석유와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여 수급 차질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보다 두텁게 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희토류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전략 자원의 공급망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및 석유화학 등 피해 산업 지원에 1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3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무역보험기금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 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의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제조 AX 대전환에 11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근본적인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도약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요 업종과 뿌리산업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조 AI 로봇 실증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X 전환 지원을 위한 데이

터센터 실증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M.AX 생태계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담아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고유가와 고환율이 지속되고 운송 차질, 물류비 상승 등이 이어져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수출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8개 사업에 총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첫째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둘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셋째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넷째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622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1000억 원 증액하였으며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이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출 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 원을 증액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에 필요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급 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생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지원에 5852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3200억 원 확대하고 보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 원 추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24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동 전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제 상황에서 청년이 창업을 통해 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기 위해 80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여 단계별 경연을 통해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딥테크 중심의 지역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중심대학 예산을 2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로컬 창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모두의 지역 상권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60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산, AI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784억 원 증액하고 초기 창업기업, 재도전기업, 지역 소재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금 규모를 17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의 원천인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AI 전문인력 확보에 8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변동성 심화와 고유가, 공급망 경직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수출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해외 진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연간 11조 원 규모의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은 우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수출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가 직접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정부 인증 상표 위조상품을 추적·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는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고 우리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추경 규모는 전체 추경 규모 26조 2000억 원 대비 3.5%에 해당하는 9241억 원으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총 13개 세부사업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및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고 공급망 교란으로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및 생산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는 최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 규모의 재산정,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 방식을 보완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운임료와 할증료 부담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유동성 부담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새로운 거래선 발굴에 필요한 유관기관 연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활용 확대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는 나프타의 수급 지원 등을 위해 474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승분을 추계하였으나 이후에도 나프타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심사일 기준으로 평균 수입단가를 추계하는 등 상승분을 재추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은 제조 명장의 기술·노하우로 축적된 제조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 제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제조 암묵지의 활용·전승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암묵지 소실 위험이 큰 사업 분야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원유 25만 5000배럴을 포함하여 원유 130만 배럴을 비축하고 비축기지 증설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용역을 추진하고자 158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 재원인 산업통상부 소관 법정부담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 및 비축기지 건설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국가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95억 원 규모로 세부 사업을 하나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K-브랜드 증명표장에 대해 정품인증기술과 QR코드를 결합하여 정부가 직접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거나 수사·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품인증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소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른 수출 차질 직·간접 피해 기업에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재원 1000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도전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혁신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코칭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패키지 등 국회가 타 사업으로 심의·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활용하여 국회에 추경안 제출 전부터 1차 프로젝트를 추진·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창업 열풍을 확산시키려는 사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의 용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기반조성의 내역사업인 기술사업화패키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창업기업 특화트랙을 신설하여 정부 R&D를 수행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서비

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경 사업 대상 창업기업은 본예산의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본예산 사업공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 미달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서 사업 홍보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는 창업열풍펀드 그리고 지역성장펀드, 제도전펀드 등 총 17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모태펀드 추경예산의 70.1%를 차지하는 지역성장펀드의 경우 수도권 대비 투자 대상, 운용사, 출자자 등 제반 인프라가 열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내에 결성된 지역펀드 비중이 20~3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모펀드 구조상 연내 투자 실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투자까지의 기간과 또 미투자 잔액을 최소화하는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의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로컬창업트랙의 하반기 추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당초 계획한 내내역사업의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트랙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창업수당 그리고 경진대회 집행액을 증액하는 등 예산안 확정 당시 계획과는 다른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과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구자근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요청입니까?

○김종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구자근 위원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그다음 김종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5조 원을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가 기획예산처 소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부가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정부가 실컷 내놓고 따지고 보면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고가격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유사 손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3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

데 자료를 안 줘요. 그러다가 그저께 토요일 날 이 전체회의 있기 이틀 전에 자료를 줍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적절히 산정하고 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할 예정이다’. 뭘니까, 이게? 성의 없는 태도, 껌껌이 정책.

그리고도 5조 원 예산을 챙겨 달랍니다. 예비비 4조 원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지난 2024년도에……

저도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자료 요청하신다며…… 1분만 더 드려요.

○구자근 위원 예,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우리가 예결위 할 때 그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산업부 관련해서 공급망 위기 때문에 예비비 4조 8000억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눈먼 쌈짓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비비 2조 4000억을, 반쯤을 그냥 깎았습니다.

○송재봉 위원 질의하시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아니, 하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 이철규 자료……

○구자근 위원 혈세 5조 원 껌껌이로 예비비로 편성하면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하셔야지 왜 질의를 하세요. 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권향엽 위원 자료 요청을 해요.

○송재봉 위원 질의시간에 해야지, 자료 요청한다고 하면서……

○구자근 위원 아니, 다 들어 보세요.

시간 30초 더 주세요.

○권향엽 위원 뭘 자꾸 그렇게 해서 합니까?

○위원장 이철규 빨리 자료 요청하세요, 빨리. 자료 요청하세요.

○구자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데 추경을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 보세요.

산업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경고도 좀 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최고가격 산출 과정 및 회의록 그리고 정유사 손실 검증 가이드라인 및 계획 등 우리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방에서. 요청한 거 자료를 꼭 좀 챙겨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예산소위 위원이지요?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요청 자료 오늘 질의가 끝나는 대로, 끝나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산 심사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산자부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제가 내일 예결소위에 들어가는데 예결소위 전까지, 소위 토론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석유 사후정산제 관행을 폐지하기로 당정협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산자부에 확인은 안 했는데 이 합의한 것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또 얼마 전에 전체회의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내용이라서 정말 발빠르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핵심은 유가시장을,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건강한 가격 조정 기능이 되살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사후정산제 말고 한 발 더 나가서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민관 공동구매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방안까지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철규 1분 더 드리세요.

○김종민 위원 이번에 예결소위 때 그런 추가 증액안도 제안을 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자부 의견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퍼지컬 AI와 관련된 예산이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가 이렇게 혼재돼 있는데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퍼지컬 AI 사업은, 이 분야는 산자부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퍼지컬 AI 관련해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40억, 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150억, 민관협력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120억 그다음에 AI-인간협업형 글로벌실증 666억 이런 것들이 다 과기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아마 산자부에서도 의견을 냈을 거예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소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퍼지컬 AI와 관련해서 산자부가 주관해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헛갈려해요. 그래서 퍼지컬 AI 하는 회사들이 과기부 쪽으로 협회나 이런 걸 이동해야 되나 이런 논의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산자부가 M.AX라고 해서 Manufacturing AX 이 용어를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퍼지컬 AI는 과기부다.

○김원이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김종민 위원 이게 자료 요청이에요.

M.AX는 산자부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어 사용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이번 예산안에 퍼지컬 AI 관련해서 과기부에 편성된 예산이 왜 이게 과기부, 산자부 구획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주세요, 기재부의 의견 말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분석해서 또 나름대로 기재부하고 논리적으로, 여당 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여당 위원 설득해서 산업부 업무로 확실하게 구획 정리를 해야지요. 그거 좀 보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내일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심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소위 위원님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다음……

잠깐만, 허성무 위원님 앉아 계십시오. 그럴까 봐 지금……

○**허성무 위원** 질의하지 말라며. 그러면 가야지.

○**위원장 이철규** 오늘 본회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이 진행돼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상정된 추경안 등을 예결소위에 회부하는 의결을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대체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예산소위에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회부 의결을 해 주시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위원장 이철규** 예.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은 별도 의결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아니, 나중에 의결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위 회부하는 것만.

○**김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위원장 이철규** 소위 회부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첫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물류 공급망, 물가 인상 등 정말 우리 산업 전반에 또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와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고 다행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이번에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나프타 등의 수급 차질로 인해서 플라스틱 포장 업체의 경우는 특히나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기준을 봤더니 2월 기준으로 톤당 154만 원 수준이었던 합성수지 가격을 3월에 한 20~50만 원을 인상했고 4월 1일 자로 50~7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렇게 플라스틱 제조 기업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전쟁 대비해서 75%가 인상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제조 기업들은 이런 높은 공급가를 곧바로 납품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부·중기부가 함께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하고 수요 대기업 또 석유화학기업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우선 급한 대로 공급가액과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보장해 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수요 대기업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해서 이와 관련해서 납품가격을 4월 1일 자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과 납품 기일도 조정하고 또 납품대금 공급도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가 그래도 가능성 있고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실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우리가 이미 법을 통해서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납품단가 연동제가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위기 시기에는 현재의 제도로는 연동제가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긴급한 이런 전쟁이라든가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중기부가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공공 배달앱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대형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최고점을 찍고 있고, 이익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배민과 쿠팡이츠를 포함해서 3개사가 93%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가 계속해서 추가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 또 표시광고법 위반 이런 것이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배 짜라 식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빠른 배달 경쟁력을 위해서 입점 기업, 외식업체들에게 조리시간까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조리시간을 제때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정도까지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공정 플랫폼, 공공 플랫폼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시장에 있어서의 건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공공 플랫폼의 활성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저는 반영을 하고 그래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앱 관련해서 공공 배달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배달앱 시장이 플랫폼의 특성상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과점 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불공정행위도 감시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 의견처럼 공공재를 투입해서 그 공공재가 시장 내에서 그런 불공정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추경 정부안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공공 배달앱이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서 시장에 적정한 수수료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대·중소 상생협력법에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상생협력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12월인 만큼 기다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저희가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미리 참여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왜 이렇게 빨라요.

○위원장 이철규 빨리 왔어요, 순서가.

○서일준 위원 6번이 2번으로 올라와 버렸네.

○위원장 이철규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순서입니다.

○서일준 위원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중기부차관님, 이번 추경 목적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민생경제가 어려워니가 시급한 민생경제 해결하자 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런 의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포장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사재기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업스트림 쪽은 나프타를 전락물자로 지정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다운스트림 쪽은 워낙 넓어서……

○서일준 위원 실제 지금 소매에서 굉장히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사재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중기부에서 민생 추경 한다면서 이런 것 빠지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 부처별 역할부터……

○서일준 위원 지금 산업부에 보니까 나프타 도입 단가 일부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원활히 돌아가겠어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산업부차관님, 지난 3월 12일 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3500억 불 중의 2000억 불은 현금이고 1500억 불은 조선 협력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500억 불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500억 불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FDI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나 기금 등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론 그리고 보증 이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1500억 불이 산업부에서 직접투자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보증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선박금융도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라인을 설정한 건지, 할 건지 이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지금 미국 쪽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안들을 만들고 있고 업체들과 함께 그 안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금액들이 좀……

○서일준 위원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 기업에다가 부담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구심이 많아요. 이걸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1500억 불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기업에다가 부담시키면 이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국익 차원이 우선인 거고 국익에 제일 일선에 있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면서도 기업의 투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손실과 위험 부담은 어떻게, 부담 주체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대미 투자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나 이런 위험이 생기면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 회사가 부담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하신 세 주체가 다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서일준 위원 부담을 한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형태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속도도 중요한데 지금 현장에서 투자가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가 늦어지면 미국 정부에서도 각종 유인책하고 인허가도 함께 지연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는 기업만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처럼 마스가 프로젝트와 별도의 2000억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마스가 부분이 기업들의 희망만큼 속도가 못 붙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의 상무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마스가는 별도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게 상호 간에 같은 입장이고 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저희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주세요. 2분만 더 주세요.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보충질문은 원래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사실 지금 미국 마스가, 미국 조선업 부흥을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내 조선소의 숙련공이 유출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내 조선산업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해서 외국인 인력을 계속 수혈하는데 외국인 인력은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자기들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니까 이 숙련공 확보가 앞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숙련공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 쪽이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미국 측하고 같이 고안을 해서 만들고는 있는데, 우리 쪽에서 그 부분 쪽에 인력이 가기는 가야 됩니다.

○**서일준 위원** 그런데 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가 결국은 인력이거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미국 조선 부흥을 하려면 결국 우리나라의 숙련공이 대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도 지금 숙련공이 없는데, 국내 숙련공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도 좀 완화를 시키고 또 지금 중소·중견기업에 실시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병역특례제도를 운용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기업 병역특례제도 부분 쪽이 잘 안 되는 것 등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여기하고의 로테이션 부분과 그런 방안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그 인력 양성 부분이 우리가 우선이 되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시너지 효과가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산업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아까 포장재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철규**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저희가 포장재 수급 문제 및 비용 부담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 비용 완화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은 산업부 그리고 포장 대체재 등은 기후부, 각 기능별 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체 예산안에서의 이런 부처별 역할을 감안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예요.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저쪽으로 좀 가세요.

요즘 산자부나 중기부를 보면 무능하고 포퓰리즘 장관들 모시느라고 차관님들하고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안타깝고 또 더 잘해 드려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경안을 조건부로 동의했었던 그 이유는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 지금 응급환자 살리라고 추경을 하는 건데 갑자기 뭐 비타민 들어가고 해열제 들어가고 영양제까지 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 장관들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결특위 여당 간사도 해 보고 야당 간사도 해 봤습시다라는 이런 엉터리 편성의 예산 추경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 차관님,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기술개발(R&D) 800억 원 있잖아요. 명장의 경험을 AI화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성과 도출에만 몇 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전형적인 중장기 과제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다 집어넣는 것,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00억 원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석유품질관리사업에 223억 원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핵심 사업이 통합관제센터, 이것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구축이 다 끝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연내에 써먹지 못할 시스템을 왜 긴급 추경으로 앞당겨 갖고 지금 예산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고유가 극복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 가지고 그냥 추경 끼워 넣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품질관리사업 223억 원도 저는 삭제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정관 장관이 안 와서 그러는데 우선 석유공사 사장님, 우선구매권 행사 관련해서 가지고 이게 정책적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정책적 영역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김성원 위원** 우선구매권 행사,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과 장관의 공적 지시가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적 영역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아닙니다. 저희들 수천억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다시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구매권 행사, 산업부와 소통이 필요한 정책적인 사안.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저희들은 모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 뭘지 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예.

○김성원 위원 지금 노조하고 산업부장관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상황이세요? 어디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산업부 말이 맞아요, 아니면 공사 노조 말이 맞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그건 사장으로서 산업부 말씀하고 노조의 말씀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노조가 지금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김성원 위원 지금 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예.

○김성원 위원 그러면 장관이 잘못했지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저보고 판단하라면서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손주석 그 점은 산하기관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성원 위원 시간 가니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중기부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1550억 원 편성이 됐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님.

○김성원 위원 이것 본예산에 한 푼도 없던 신규사업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의 방식을 저희가 변경해서……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이것 왜 들어왔어요,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전에……

○김성원 위원 대통령이 창업 열풍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청년실업이라는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거랑 전쟁 추경이랑 무슨 상관이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전쟁 상황에 따라 청년들의 실업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국가재정법 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지금?

소상공인 창업 지원 453억 원 증액 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그 모두의 창업이……

○김성원 위원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인용돼 가지고 더 진행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추경 편성 필요성은 저희가 추가로……

○김성원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작년 예산 때는 얘기가 거의 없다가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저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규 예.

○김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 원하고 소상공인 창업 지원 453억 이것은 추경 요건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보고 예결위원들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차관님, 우리 중동 분쟁 피해 기업 몇 개입니까? 471개입니다. 경영안정지원자금 포함해 갖고 1200억 원 넘게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쟁추경하고 아무 상관 없는 아까 얘기했던 모두의 창업 1550억, 제조AX 750억, 이것 뭐 중기부 숙원사업들을 지금 다 끼워서 들어왔어요.

답변서 보니까 더 웃깁니다. ‘본예산 편성 때는 현장 요구가 없어서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기술이 좋아져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절대로 긴급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수출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예산 1000억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기업이 어떻게 됐어요? 4200개에서 지금 1만 개까지 늘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000억 늘린 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지금 추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1만 개까지 늘린 것 아닙니까? 아니, 중동 피해 기업이 471개라고 해 놓고서 뭐 1만 개까지 늘리고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중동 피해 기업은 5000개 정도 되고요.

○김성원 위원 이걸 전쟁이라 무슨 상관이예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피해 기업이라 함은 현재까지 애로가 접수된 기업이……

○김성원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1만 개까지 늘리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 수치 근거가 전혀 저한테 전달되지 않았습시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금 중동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물류 차질이 중동 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우선 긴급한 건요, 추경 때는 중동에 먼저 한정해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피해 기업, 3차 피해 기업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딱 데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웅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수에즈나, 홍해 쪽도 물류 차질이 있어서 현재 유럽 수출 물류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수출바우처 사업도 삭감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희 위원 8분 주세요, 8분.

○위원장 이철규 드릴게. 하세요.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산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의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동안 저희가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는데, 그 두 차례 오일쇼크를 합한 규모에 이미 도달했고 LN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충격의 2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금 미국이 4주 내에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번 사태가 만약에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같은 조건으로 과거와 같이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럴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망한 것을 보니까요 조기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시설이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여러 시간과 자원이 투입될 것 같고 관련해서 유가가 배럴당 최소한 9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실 이게 최소 전망치고요 앞으로 17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이번 추경안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핀셋으로 골라서 그냥 그 오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2년 안에 다

가을 수 있는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담은 것이 이번 추경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을 심의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고요,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방금 김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유통합관제센터 설립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짜석유 문제 같은 건 이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게 필요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석유 수급에 위기가 생기자 보니까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 석유통합관제센터 설립은, 사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니까 4분기에나 완료될 거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세부계획을 당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짜석유 문제로 물량에 대한 통제나 보고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가 돼 있고 가격 정보는 오픈넷 때문에 석유공사로 돼 있는 것 때문에 상호 연계하는 게 지금까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걸 못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반드시 이 2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처럼 정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서 당초 시기보다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2026년 4분기에나 완료될 것이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꼭 이번 기회에 해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석유 유통관리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12억 4000만 원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품질·유통검사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관련된 경비를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월 2000회 이상 순증하는 걸 가정했는데 관련된 인력 규모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이 약 2000회로 엄청 많이 늘어서 지금까지는 맥스로 풀가동을 해서 격무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증가했을 때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은 한데 현재의 수준으로 지금까지 한 한 달을 해 보니까 지금 정도로 유지를 하면 석유시장 감시나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인원은 이번에는 기존의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철규 위원장, 김원이 간사와 사회교대)

○박지혜 위원 기존의 실적이 월 평균 3000회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 2분 더 주시는 것 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이 2분 더 드리세요.

○박지혜 위원 여기에서 2000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저는 사실 기존 인력의 과부하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가동하시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또 해당되는 부분도 이번에 예산심의하실 때 조금 현실적으로 잘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리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리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20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핵심광물 재자원화 같은 경우는 자원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증액 규모가 적절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 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통계나 기업 지원 부분 쪽에,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쪽에 최소 금액을 우선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지혜 위원 사실 저희가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을 20%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 수치 작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저희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계 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하는 방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 통계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산업통상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더라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시간인데 제 질의시간에 위원장석에 앉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철규 위원장님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20분, 30분씩 질의를 이어 가는 모습을 본받아서 제가 오

늘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꺼지더라고요, 위원장은.

산업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석유화학 기업이 26년 4월부터 6월까지 수입계약을 체결한 나프타 구매 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부안이 편성된 이후에 나프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나프타 물량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쟁 전에 비하면 2배가 오른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뒤로도 한 30~40%가 더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상향된 나프타 국제가격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인 나프타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나프타 확보에 좀 더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차액 지원비가 50%인데 이걸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도 나프타를 잡아 올 수 있는 확실한 유인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리고 이것은 제 제안인데, 나프타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국내까지 들어오는 데 30~50일 정도가 소요되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러면서 신속 수입을 할 수 있는, 다른 석화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이라든가, 이게 무슨 유분이라 그러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초유분이요.

○위원장대리 김원이 기초유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석화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초유분에 대해서도 좀 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필수품들이 소량으로 만드는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부 있고 또 이 업체들이 중간제품을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도 수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나프타가 흔히들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기업들은 나프타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이게 대기업에서 멈춰 버리고 밑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나프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정부가 지금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대리 김원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평가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알뜰 3사하고 정유사 간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급 물량의 가격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보니까 적용방식 차이를 보면 이 차이에 따른 알뜰 3사 통합 추정 손실액이 1000억을 초과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리고 대금 정산기한도 지금 4월 10일로 며칠 남지 않았습시다. 이때 산업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산업부가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은 상거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최대한 협의를 하되 필요하다면 저희 산업부가 나서서…… 이게 어찌면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가격제가 갑자기 시행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 간 상호 간의 분담의 의미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또 하나, 권향엽 위원님 잠깐 나가셨는데 지금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석유화학하고 철강이 산업위기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위원장대리 김원이 정부에서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오고 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앞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지금 석화지역 같은 경우에 정말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가는 한계기업들이 마구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는 석화산업 위기지역만이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약 1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 정도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준 만큼 산업부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석유화학 특별법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부 측에 반대의견을 냈습시다만 그때와는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리고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사실은 앞친 데 덮친 격이 살아남기,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구조조정에다가 나프타 부족 문제까지 같이 겹치고 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더더구나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시행돼야 된다고 정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지금 석화기업들이 나프타 부족, 나프타를 구하기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 오른 가격을 또 시장가격에 반영할 수 있냐? 지금 못 그러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못 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프타를 구하고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부수적인 전기요금도 정부가 좀 부담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리고 중기부에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정부에서는 전쟁 추경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는 전쟁,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 온 피해를 막기 위한 그게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합시다라는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버텨 나갈 거라고 보는데 진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청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즈음에서 모두의 창업 관련한 예산을 세운 것은 정부가 이번 추경을 단순히 전쟁 추경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추경이기도 하다, 이런 성격을 정부가 잘 잡아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나중에 끝나고나 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위원장대리 김원이** 또 하나는 고유가 시대에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 집중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러면 다른 중복 지원이 다 없어졌냐? 그렇지 않아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받고 농어민지원금도 받아요. 이 경영안정바우처가 사실 지금 유류비로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설계를 잘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안정바우처 금액을 좀 늘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경영활동상 쓰이는 비용 중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특별한 지원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대상을 에너지 고비용 업종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포

항이나 여수 등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이런 지역으로 포커싱해서 기존의 경영안정바우처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을 하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내일 예산심사 할 텐데 그때까지 안을 잘 짜서 예결소위원님들 잘 설득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위원장대리 김원이 1차관님도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창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 고용이 22개월 연속 악화되고 있고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 추경에 창업 분야 예산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창업 분야 예산은 단순히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걱정들,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득 작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5분을 알뜰하게 썼습니다.

(「10분 썼어요」 하는 위원 있음)

5분입니다. 딱 멈춰 있었습시다. 저에게 주어진 5분의 질의를 마치겠고요.

김원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문신학 차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언주 위원 제가 아까 대정부질문 하면서 장관님께 많이 여쭙보긴 했는데 지금 홍해를 통해서 우회 수입하는 문제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운송비가 호르무즈를 통하는 경우보다도 얼마나 더 오르나요, 보통?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좀 더 오르기는 합니다마는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유사들 얘기는 국적선 구하기가 어렵다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대부분이,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CIF냐 FOB냐 DES 기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점점 산유국들이 자기들 배를 가지는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들이 많이 보유했던 해운선사들의 보유 대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번 기회에 그것도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언주 위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그쪽 길을 계속 개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수송관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송관도 지금

동서 관 하나 있는데 동서 관에서 오만 쪽으로 좀 내려오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로 하나를 더 파든가 해서 우리가 거기 수송관 건설공사에 참여해서 지분을 획득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리스크 헤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이 간사, 이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최고가격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최고액으로 인해서 정유사 등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재정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언주 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보전이 될까 이런 불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전 이 부분에서 어떤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가격이 책정되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보전이 다 된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에 왜곡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잘 아시겠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매우 절박함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에 있어서는 수급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강력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가격 통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공급 통제도, 유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업 수급 상황에 따라서 더 절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급 통제 부분도 수급 통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언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쭙면요.

LNG 관련해서 이번에 대미 투자, 워낙 지금 전쟁하다가 갑자기 미국 관세가 굉장히 먼 나라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특별법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안이 오면 우리가 또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국 태평양 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소위 LNG터미널이 태평양, 미국 서부 쪽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미국에 LNG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쪽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위원장 이철규 좀 더 넣어 드려요. 2분 더 넣어 드려요.

○이언주 위원 지금 전쟁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전 세계의 동맹 또는 연맹 이런 에너지 안보 동맹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당분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산유국들과 좋은 관계도 있지만 특정한 어떤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합집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중질유가 생산되는 남미 국가들과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유종 또는 특정한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동맹 관계 또는 연맹을 하는 협력체 이런 새로운 유형의 관세협상 동맹, 연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국제기구 유사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혹시 이것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의 패러다임이 어떤 관세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에너지 안보 그리고 핵심 광물, 계속 확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우리 그동안에 보면 금융도 스와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원도 어떤 특정한 자원 몇 가지를 가지고 스와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진욱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잘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강승규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일주일 내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예산결산소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늦은 오후에는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름 한번 짚 불러 주십시오, 끝까지 자리 지킨 사람들.

○위원장 이철규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원이 간사님, 박성민 간사님, 구자근 위원님, 송재봉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10인)	권향엽 김원이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5)
	구자근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국민의힘(4)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9인)	◎김원이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5)
	강승규 김성원 장동혁 정동만	국민의힘(4)
예산결산(10인)	권향엽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더불어민주당(5)
	강승규 구자근 박상웅 정동만	국민의힘(4)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원심사(5인)	이연주 이재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3)
	◎서일준 장동혁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강승규 구자근 권향엽 김성원 김원이 김종민 김한규 박성민 박지혜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연주 이재관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허성무

○청가 위원(4인)

김성환 박상웅 전재수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성장실장 김성열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정책기획관 정상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연우

통상정책국장 김영만

통상협정교섭관전담직무대리 김장희

무역정책관 나성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

표준정책국장 박종섭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창업벤처혁신실장직무대리 조경원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하녕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직무대리 박현희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석유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장영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중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강석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강경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윤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최춘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조영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획조정본부장 송현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원영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김영신
 창업진흥원
 원장 유종필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이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 손창호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동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026. 4. 1.
한병도	이재관		2026. 4. 3.

○의안 회부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6. 3.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4)

3월 12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이상 3건 3월 13일 회부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3월 16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이상 2건 3월 17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이상 3건 3월 18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3)

이상 2건 3월 23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이상 2건 3월 24일 회부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3월 27일 회부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3월 30일 회부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4)

이상 2건 3월 31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7)

4월 1일 회부됨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4. 2.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7)

4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2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8)

3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 3.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5)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이상 2건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9)

3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9)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51)

4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63	46	-	42	9	369
중소벤처기업부	26	19	-	42	4	94
지식재산처	7	12	7	34	6	50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제출**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2026. 3. 21. 천준호 의원 등 16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17675)